

【 해외금융뉴스: 복미 】

오바마 행정부, 연방보험기관 설립 제안

-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월 17일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감독제도 개선을 위해 재무부 내에 연방보험청(The Office of National Insurance)을 설립할 것을 요구함.
- 연방보험청은 정보수집, 전문지식 축적, 국제협약 조정, 보험관련 정책개발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하고,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됨.
 - 또한 연방보험청은 연방준비제도(Federal Reserve)가 특정 대형보험사들에 대해 대형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형태의 강화된 자본, 리스크 규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.
 -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보험산업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선택적 연방보험감독제도(Optional Federal Charter)도입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보험감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험감독제도 개선을 위해 따라야할 6가지 원칙만이 제시됨.
- 보험감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미국보험업계는 연방감독제도를 도입하자는 측과 현재의 주(州) 단위 감독제도를 유지하자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려 왔음.
-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생명보험사들과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연방감독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, 많은 중소형사들과 주 보험감독당국 등은 이에 반대해 옴.
 - 연방감독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의 주(州) 보험감독제도의 일관성 결여 때문에 경쟁이 저하되고 신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반대하는 측은 연방보험감독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각 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.
 - 이번 개선안에 대해 양 측은 모두 보험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에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.

(Reuters 외, 6/16,17)